



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재미스 도어는 향후 3년간 인력을 115%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 이 회사는 냉장 문, 고속 직물 문, 감음문 및 재순환형 공기문을 생산하고 있다. 120

명의 직원들은 이미 감세 덕에 두 개의 별도의 보너스를 받았다.

볼티모어에 본사를 둔 말린 스틸은 인력을 10% 늘렸다. 와이어, 판금, 엔지니어링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새로운 장비에도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.

덴버에 본사를 둔 센테니얼 볼트는 15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. 이 회사는 세제개혁안이 통과된 직후 연봉의 5%를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한다.

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본사를 둔 사벨 스틸은 230명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.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가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. 신입사원들은 조지아 주 뉴난과 루이지애나 주 배턴 루즈에 있는 확장된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.

번역: 이희망

출처: <https://www.dailysignal.com/2018/08/16/100-manufacturers-have-boosted-hiring-expanded-or-given-raises-or-bonuses-thanks-to-tax-reform/>